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나눔캠페인 62일간 대장정

#일주_이슈

광주·전남 사랑의온도탑 1일 제막을 목표로 광주 50억·전남 105억 “지역발전·사회문제 해결 큰 힘” 기아오트랜드·NH농협은행 동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희망 2024나눔캠페인’이 두 달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광주 사랑의열매의 모금 목표액은 50억7000만원, 전남은 105억5000만원이다. 지역민의 온정의 손길로 세워진 온

도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3일 광주·전남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출범식을 통해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매년 연말연시 17개 시도 지회에서 동시 전개되는 ‘희망나눔캠페인’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시기 동안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나눔목표액 1%가 채워질 때마다 사랑의 온도 1도가 오르게 된다. 올해 온도탑은 ‘손모아 장갑’ 형태로 나눔을 통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염원을 표현했다.

광주에서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구 도청 분수대 옆)에 온도탑이 세워졌다. 전남은 전남도청 광장(서부권)과 여수시청 앞 1호 광장(동부권)에 온도탑이 설치됐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각 지역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히고 캠페인 출범을 선포했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기부로 나눔을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다. ‘나의 기부가 성장한 광주·전남을 만들고, 결국 그 가치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지역 기업·기관 등의 ‘가치 있는’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기아오트랜드, 농협중앙회, ㈜나눔테크, 정원장학복지재단 등이 첫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전남

도의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전남 개발공사가 성금을 전달해 힘을 실었다.

광주 출범식에 참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회장들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은 “광주를 가치있게 하는 나눔동행에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광주 지역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됐다”며 “이번 캠페인도 광주시민들의 정성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전남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2024나

눔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의 온기가 모아졌다”며 “이웃과 상생하며 서로 가치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 사흘차인 3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광주 4.1도(2억1000만원), 전남 2.9도(3억1005만1000원)를 가리키고 있다.

한편 ‘희망2024나눔캠페인’ 참여 문은 △광주·전남 사랑의열매(062-222-3566, 061-902-6800) △방송 3사(KBS·MBC·KBC) △5개 구청 및 22개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ARS(060-700-1213) △QR코드 등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2·3면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기적의 3위’ 광주FC, 아시아 진출권 따냈다

포항과 최종전 0-0 무승부
경쟁팀 전북·인천 패해 3위에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 5분. 빛고을의 함성이 아시아를 향해 뻗어 나갔다. ‘호버지와 아이들’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위를 확정 지었고 창단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광주FC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광주는 올 시즌을 16승 11무 11패(승점 59)로 마무리했다.

광주사람들 (577/1000)

정정하
화가

▶관련기사 17면

광주는 동시에 시즌 최종전을 치른 4위 전북현대(승점 57)와 5위 인천유나이티드(승점 56)가 각각 0-1, 1-2로 패하며 3위 자리를 지켰다. K리그1 3위까지 주어지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했다.

이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목적을 갖고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꼭 나가서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는 이 감독의 각오대로 전반 초반부터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전반 9분 만에 이호재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고 전반 11분 아사니의 프리킥과 전반 34분 티모와 허율의 슈팅으로 기세를 올렸다. 전반 39분 허율의 헤더가 황인재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고 2분 뒤 다시 허율의 다이빙 헤더가 황인재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다시 한번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광주는 후반에도 득점을 위해 달렸다.



광주FC 선수단이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3위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한 뒤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후반 15분 하승운이 하프발리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 32분 박한빈의 중거리슛이 수비 맞고 골포스트를 강타한 뒤, 코너킥에서 정호연의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때렸다. 그 직후 엄지성의 슈팅은 황인재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에도 엄지성의 슈팅으로 골문을 조준했다. 이 슈팅이 살짝

빗겨나간 뒤 엄지성이 직접 공을 가져다 골라인에 놓으며 승리의 지를 불태웠지만 끝내 0-0으로 경기는 종료됐다.

광주는 경우의 수로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인천이 대구에 1-2로 패하며 최소 4위를 확보했다. 이후 전북과 울산의 경기가 0-1로 종료되며 3위를 확정 지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다행히 지지 않았다. 이겨서 3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울산과 대구의 도움을 받았다”며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은 좋은 일이지만 많이 부족하다. 오늘을 자양분 삼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일보 연중 캠페인 **바다를 살리자**

2023 전남 해양고교 바다 환경 계기 교육

전남일보와 (사)전일엔컬스는 전남지역 해양 관련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학생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는 자료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살아 숨 쉬는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미래세대 바다 지킴이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바다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시 : 2023.12.4. (월) 11:00~12:00

장소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문의 : 062-519-0730

주최 : 전남일보, (사)전일엔컬스

후원 : 전라남도,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